

# 韓 國 왕 빛 나 무 의 調 查 研 究 史

朴 萬 奎

(高麗大學校 理工大學 生物學科)

## A Historical Survey on the *Prunus yedoensis* in Korea

Park, Man Kyu

(Dept. of Biology, Korea University)

(1965. 10. 18 接受)

### 緒 言

왕빛나무는 日本人들이 公園, 名勝地에 널리 栽培하여 愛玩하는 빛꽃나무인데, 그들은 接木으로 而不한 單幹고있다. 現在 韓國에서 왕빛나무가 많은 곳은 濟州道 新孝里, 鎮海, 昌慶苑 等地인데, 이것들은 모두 日本에서 苗木을 求하여 심은 것이다.

왕빛나무의 自生種을 漢拏山에서 처음 發見한 것은 Taquet. 이를 學界에 紹介한 것은 Koehne 이었다. Wilson 은 日本의 빛나무를 調查研究한 끝에 日本에는 왕빛나무의 自生種이 없고, 그 形態의 特徵을 推察하면 雜種起原이 된다는 意見을 披瀝한바 있으나, 小泉源一가 漢拏山에서 왕빛나무의 自生種을 再發見함으로써 漢拏山이 그 原產地로 確定되었다. 더욱 近年에는 筆者, 夫宗休 等에 依하여 漢拏山에서 이미 10餘株를 追加 發見한 뿐아니라, 今年 4月에는 筆者가 全南 海南郡 大屯山에서 3株를 다시 發見하므로써 韓國이 그 原產地라는 것을 再確認하였다. 그러나 近者에 日本 竹中實은 Wilson의 雜種起原說을 支持하는 實驗結果를 發表하여 또다시 그의 原產地推定에 混線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왕빛나무에 關한 調查研究資料를 蒐集整理하여 原產地說을 整理하려한다.

### 調查研究資料

1. 1901年 日本國 東京帝國大學理科大學 教授 松村任三에 依하여 日本東京에서 널리 栽培한 것을 基準種으로 *P. yedoensis*라 命名하고 東京植物雜誌 XV卷 p. 100에 新種으로 發表하였다. 日本名을 染井吉野 또는 染井吉野櫻로 發表하였으나 1900년에 日本政府 博物局天產課員 藤野寄命가 田中芳의 指導下에 上野公園의 빛나무들을 調査할 때에 命名하여 日本園藝雜誌 45號에 發表하였다.

2. 1908年 當時 南濟州郡西挾里聖堂에 계시던 Taquet 神父가 聖職의 틈을타서 漢拏山一帶의 植物을 採集하여 歐羅巴學者들의 研究資料로 提供하여 濟州島의 植物이 西域植物界에 처음으로 紹介되었다. 그해 4月 15日에는 漢拏山 北側에 있는 觀音寺 뒷산 海拔 約 600m 地點의 숲속에서 빛나무를 採集하여 標本番號 4638號를 부여서 當時 장미科 權威者인 Berlin 大學 教授 Koehne에게 보내고, 다른 一部는 日本國靑森市聖堂 神父 Faurie에게 分讓한 바 있는데 Faurie는 그의 親友이며, 日本植物採集家로서 널리 名聲을 떨치던 분이다.

3. 1912年, Koehne는 Taquet이 採集한 빛나무에 *P. yedoensis* Matsumura var. *nudiflora* Koehne로 命名하고, Repertorium Specierum Novarum Vegetabilis X號 p. 507에 發表하였다. 즉 松村의 왕빛나무의 一群이 漢拏山에 自生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學界에 紹介한 것이다. Koehne가 왕빛나무의 變種으로 發表한 이 種類는 그뒤에 中井猛之進 教授의 研究로 日本에서 널리 栽培하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여 왕빛나무의 異名으로 取扱하였다.

4. 1913年, 日本國 京都帝國大學 教授 小泉源一은 染井吉野櫻(왕빛나무)의 自生地라는 論題로 東京植物學雜誌 XXVII卷 p. 395에 왕빛나무는 濟州島漢拏山에 自生한다고 發表하였는데 그 資料는 羊齒植物專攻者인 兪玉義輔가 Faurie의 採集한 標本研究次로 靑森市에 갔을때에 빛나무類란은 모두 빌려서 小泉에게 提供되었던 것이었다. 그 中 漢拏山産의 왕빛나무標本은 이미 Taquet으로부터 分讓받은 것이며 Berlin 大學標本室에 所藏된 것과의 重複品인데 現在 京都大學標本室에는 Faurie가 採集한 다른 標本과 같이 保管되어있다.

5. 1913年, 日本國 東京帝國大學 教授 中井猛之進는 韓國植物研究로서 學位를 얻었던분인데 當時 朝鮮總督府植物 調查囑託을 兼하고 있었다. 그해 그는 Taquet의 標本을 濟州島에서 調查研究하여 비로소 왕빛나무가 漢拏山에 自

생한 것을 알게 되었고 1916년에는 그 著書 朝鮮森林植物編 第Ⅴ輯에서 왕벚나무는 Taquet에 依하여 漢拏山에서 自生種을 發見하였는데 그때까지 濟州島에서는 아직 왕벚나무를 栽培하지 않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數十年된 老木을 發見하였다는 것은 매우 注目할 만한 事實이다. 濟州島는 唯一한 그 自生地라고 斷定하고, 왕벚나무는 日本 德川時代에 江戶(現 東京都)에 있는 染井라는 꽃집에서부터 퍼지기 始作한 것이라고하나 眞否는 알길이 없으며, 또 日本에서 널리 栽培하는 그 原種을 濟州島에서 가져왔다는 것도 肯定할 수가 없으므로 그 原產地는 不分明하다고 하였다. 本編에는 왕벚나무의 훌륭한 圖版과 記載가 실렸으나 原標本에 對하여서는 아무런 言及이 없다.

6. 1916年, 美國 Harbard 大學 教授 Wilson는 樹木學者로서 往년에는 우리나라의 濟州島, 鬱陵島, 光陵等地的 植物을 調查한바있고 論文을 發表한바도 있다. 그는 1915年 봄에 Prunus의 研究次, 日本에 와서 各地로 調查旅行을 하는 동안 왕벚나무의 自生種을 찾기 心勞를 기울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歸國하여 그이듬해인 1916年에 The Cherries of Japan 이라는 論文을 發表하였는데 왕벚나무의 條項에서 大島櫻과 江戶彼岸櫻(울벚나무)와의 雜種인듯하다고 하여, 그 理由로서 形態의 特徵을 들었다. 또 이키 Koehne가 指摘한 漢拏山에 自生한다고 하는 것에 對하여서는 매우 疑心스러운 일이라고도 하였다.

7. 1922年, 森爲三(當時 第一高等普通學校 敎諭)는 그 著書 朝鮮植物名彙에서 왕벚나무를 韓國植物의 自生種으로 取扱하고 產地를 濟州島로 明記하였다.

8. 1923年,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技師 石戶谷 勉, 同技手 鄭台鉉共編 朝鮮樹木鑑要에는 왕벚나무는 漢拏山에 野生하고 그 原產地는 不分明하다고 記錄하였다.

9. 1928年, 石戶谷 勉(當時 京城帝國大學醫藥部 講師)는 文敎의 朝鮮이라는 雜誌 10月號에 濟州島의 植物과 將來의 問題라는 論文에서 Taquet이 漢拏山에서 採集한 왕벚나무가 果然 野生種이었던가? 또는 Wilson이 이키 指摘한 바와 같이 果然 雜種인가? 이 問題는 將來 解決을 지워야 할 問題라고 하였으며, 또 日本에서 널리 栽培하는 왕벚나무가 濟州島에서 건너간 것이라던 다른 地域에서도 그 自生地가 있어야 할데도 不拘하고 半島部에서는 아직까지 自生한 곳을 찾지 못한 점으로 보아서 原產地에 對하여서는 將來解決하여야 할 問題라고 하였다.

10. 1931年, 日本植物分類學者 牧野富太郎와 根本莞爾共著 日本植物總覽 p. 500에는 왕벚나무는 日本에서 널리 栽培하고 있으며, 그 原產地는 朝鮮이라고 記錄되었다.

11. 1932年, 小泉源一 博士는 왕벚나무의 自生種을 漢拏山에서 確認하여 原產地에 對한 學界의 疑問點을 解決하되 그해 4月中旬 벚꽃들이 필 무렵에 濟州島를 籍訪하였다. 그는 當時 濟州島營林署長, 田中勇, 同山林主事 岩田久治와 片倉角治, 金文玉(現 正方호텔主人) 諸氏의 案内로 西歸浦에서 濟州市로 가는 東側 道路를 따라서 調查한 結果, 왕벚나무 1株, Kochne가 命名한 濟州櫻 1株, 江戶彼岸櫻 1株가 混生한 것을 發見하였다. 그 地點은 海拔 約 600m이며 牧場이 끝나고 숲이 始作된 곳이며, 母株를 베인뒤에 다시 새로운 木이 자랐으므로 그리 늙은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詳細한 經緯는 京都大學에서 發刊되는 植物分類地理雜誌 第1卷 p. 177에 報告하였다. 이로써 原產地는 漢拏山이라는 것이 明白하게 되었다. 그는 濟州島에서 日本으로 건너가게 된 經緯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德川時代의 吉野權現은 船員들이 가장 崇拜하던 人物인데, 그가 벚나무꽃을 매우 愛好하였으므로 船員들이 濟州島에서 왕벚나무의 種子를 蒐集하여서 進上한 것으로 推定된다고 하였다. 이것에서 바로 오늘날의 日本 栽培種의 왕벚나무가 생겼다고 하였다.

12. 1933年, 當時 京城帝國大學豫科 敎授 竹中 斐는 그해 4月 29日에 濟州島로 건너가서 小泉의 案内人들을 偕同하고 그 나무를 찾았으나 花期가 지났으므로 겨우 뒤늦게 된 한가지만을 採集하고, 天然林속에 있는 점으로 보아서 天然生으로 斷定한바 있고 1934년에는 史蹟名勝天然記念物誌 XI卷 p. 1에서 染井吉野櫻(왕벚나무)의 原產地에 對하여서라는 論文을 發表하였다. 그는 왕벚나무의 栽培種과 漢拏山の 野生種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은 相違點이 있다고 指摘하였다.

栽培種……잎에는 靑은 뒤에도 裏面脈上에 털이 多少남고, 꽃말침에도 털이 있으며, 花梗이 짧다.

漢拏山野生種……잎에는 靑은 뒤에는 털이 없고, 꽃말침에도 털이 없으며, 花梗이 길다.

그는 다시 現栽培種은 모두 接木으로 增殖하고 있으나 生育地에 따라서는 相當한 差異點이 나타난다는 點으로 미루어 보아서 以上과 같은 些少한 差異點으로서는 栽培種과 漢拏山野生種은 同一種으로 取扱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왕벚나무의 原產地를 濟州島로 斷定하였다.

13. 1935年, 當時 西歸面長 金贊益(現 生存者)은 下孝里出身인데, 自己管内의 道路를 넓히고 또는 新設하는 同時에 道路樹를 심고 가꾸는 것을 強力히 推進하였다. 그래서 그를 道路面長이라는 別名까지 부르게 되었다. 그해 봄

에 日本에서 왕벚나무苗木을 大畵으로 사들여서 西歸浦를 中心삼아서 一周道路의 道路樹로 심었든 것이다. 現在 濟州道新孝里 왕벚나무의 名物은 그데에 심은 것이다. 이로써 濟州道에서 日本産왕벚나무를 처음 栽培하기 始作한 것이다.

表旌面 表旌國民學校校庭에는 늙은 왕벚나무가 있는데 韓日合併前에 山에서 캐다심었다고 하나 믿을만 한것이 못된다. 病虫害로 因하여 樹勢가 아주 弱해졌다.

14. 1940年, 當時 水源高等農林學校 教授 植木秀幹는 그 著書 朝鮮産樹木의 種類及其 分布에서 왕벚나무를 自生植物로 取扱하고 그 產地를 漢拏山으로 取扱하였다.

15. 1940年, 全羅南道教育會發刊인 全羅南道植物誌에는 왕벚나무를 濟州島漢拏山 自生植物로 取扱하였다.

16. 1947年, 서울大學校農科大學 教授 李昌福의 著書 朝鮮樹木에는 왕벚나무를 栽培種으로 取扱하였다.

17. 1949年, 筆者는 우리나라植物名鑑에서 自生植物로 取扱하고 分布地를 濟州島로 明記하였다.

18. 1952年, 中井(當時 東京科學博物館館長)는 朝鮮植物梗概에서 왕벚나무는 韓國産自生植物인 同時에 特産으로 取扱하였다.

19. 1953年, 日本國 東京科學博物館圖書課長 大井次三郎는 日本植物誌에서 大島櫻와 江戶彼岸櫻와의 雜種으로 取扱하였고, 濟州島에 自生한다고 記載하였다.

20. 1957年, 牧野富太郎는 日本植物圖鑑에서 日本에서 널리 栽培하는 왕벚나무가 近來에 朝鮮濟州島에 自生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日本벚과는 系統이 다른것이 아닌가? 라고 記載하였다.

21. 1957年, 中央大學校 教授 李德鳳은 濟州島의 植物相에서 왕벚나무를 自生植物로 取扱하였다.

22. 1958年, 成均館大學校 教授 鄭台然은 韓國植物圖鑑上卷에서 왕벚나무는 濟州島에서 自生狀을 이루고 地理的으로는 日本에 分布한다고 記하였다.

23. 1962年, 國立科學館에서는 朴尙奎外 6名으로 構成한 漢拏山植物資源調查團을 東亞日報社後援으로 濟州道로 파견한바 있다. 4月 15日에는 漢拏山兩峯 달다리川附近 숲속에서 꽃이 滿開한 왕벚나무 3株를 發見하였다. 西歸邑에서 濟州市에 이르는 橫斷道路 狹窄이던 海拔 650m 되는 地點인데 그 아래쪽은 溪谷에 따라서만 숲이 남고 다른 곳은 모두 草原地帶이었다. 樹齡은 40—50年으로 推定되며, 꽃은 栽培種에 比하여 적고, 花梗이 길며, 萼筒의 모양이 多少 다른 木이었다. 이것들은 이미 天然記念物 156號로써 指定하여 保存하고있다.

24. 1962年, 竹中 要(現 日本國立遺傳研究所長)는 日本植物學雜誌 75卷 7月號에 벚나무屬에 關한 研究 I에서 왕벚나무의 起源이라는 論文을 發表하였다. 그는 왕벚나무의 原產地推定에 對한 疑問을 解決하고자 1951年 以來 日本各地를 調査하였으나 自生地를 發見하지 못하였으므로 1952년부터서는 왕벚나무의 實生分離實驗과 大島櫻와 江戶彼岸櫻와의 合成實驗을 거쳐서 育種한것이 처음으로 꽃이 핀 것을 調査하여 日本에서 栽培한 것은 濟州島에서 渡來한것이 아니고 이미 Wilson이 指摘한 雜種起源으로 推定되며, 濟州島의 原產地를 否認하는 根據로서 다음과 같은 點을 指摘하였다.

① 지금으로부터 約 100年前에 어느때에 누가 어떻게 濟州島에서 日本으로 가져왔을까? 또 이에 關한 記錄이 없고,

② 三好 學 및 Wilson은 濟州島 渡來說을 否認하고 있으며,

③ 小泉는 船員들이 種子를 가져가서 育種한 것이라고 하나, 實生分離實驗結果와 合成育種實驗에서는 大島櫻와 江戶彼岸櫻와의 種間雜種으로 推定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다시 日本에서 栽培하는 왕벚나무와 濟州島의 왕벚나무는 系統(起源)이 서로 다른 것으로 推定된다고 하였다.

④ 濟州島가 왕벚나무의 原產地라던 그 個體數가 많이 있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겨우 Taquet가 1株, 小泉가 2株, 竹中가 1株씩을 각각 발견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原產地가 아니며,

⑤ 栽培種이 細胞學的으로 보아서 雜種性인지 아닌지의 與否는 今後의 研究에 期待된다고 하였다.

25. 1963年, 筆者와 朴秉柱 兩人은 4月 10日부터 濟州道內 天然記念物實態調查를 하였다. 4月 16日에는 橫斷道路沿邊의 벚나무種類를 調査하였는데 六月岳과 물장을 사이 海拔 650m 地點에서 꽃이 滿開한 왕벚나무 3株를 다시 發見하였는데 그중 1株는 地上 1m 가량 되는곳에서 베었고 그 둘레가 3m 16cm, 베인 자국이 6箇所 있는 點으로 보아서 相當한 期間을 두고 年次의으로 베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베인뒤에 새로운 순이 나와서 자랐는데 東쪽에 한가지는 굵어서 材木같이 되지 못하여 그데로 남았는데 둘레가 86cm 정도이며 樹齡 60—70年으로 推定되며 지금까지 發見된것 中에서는 가장 늙은 것이다.

南側에 있는 왕벚나무와 比較하면 꽃이 크고, 萼筒이 瓶子形으로 되었다는 點뿐이었다.

이 나무들은 天然記念物 159 號로써 指定하여 保存하고 있다.

26. 1963 年, 李基寧, 安學洙共著 韓國植物名彙에는 왕벚나무의 分布地를 濟州島로 記錄하고 染色體數를  $n=8$  이 라고 하였다.

27. 1964 年, 4 月 11 日에는 濟州道の 夫宗休는 大月岳附近의 橫斷道路沿邊 숲속에서 1 株를 發見하였는데 母株를 베인뒤에 2 가지가 다시 자란 것으로서 베인 자국의 胸徑가 2 m 5 cm 나 되는 큰나무다. 4 月 14 日, 朴萬奎, 夫宗休, 吳相哲, 丁仁深 一行은 北側 天然記念物 158 號 附近에서 다시 2 株를 發見하였다. 꽃이 많이 볼고 또 相當히 커서 栽培種에 가까울 정도이었다. 이곳에는 韓昶烈 一行들이 왕벚나무의 起源을 밝히고자 交配實驗을 하고 있었다.

4 月 17 日 前記 一行이 觀音寺東南 永豐포고栽培場 南쪽 숲에서 꽃이 거의 진 것을 1 株 發見하였다. 15 年生 程度로서 지금까지 發見된것 中에서 가장 어린 것이다.

4 月 19 日 朴萬奎, 夫宗休 兩人은 성판橋 附近에서 꽃이 거의진것을 다시 1 株發見하였는데 20 年生程度로 推定되었다. 漢拿山에서 왕벚나무 自生種을 發見한 것은

1908年	Taquet	1株	北側
1932年	小泉源一	2株	南側
1933年	竹中要	1株	〃
1962年	朴萬奎外 7名	3株	〃
1963年	朴萬奎外 3名	3株	〃
1964年	夫宗休	1株	北側
1964年	朴萬奎外 3名	4株	〃
	計	14株	

永豐포고栽培場숲속에 있는 것은 11 月中旬에 掘地에서 캐서 서울에 筆畵의 自宅에 移植하여 活着하였으므로 來年부터는 꽃이 필 것이다.

28. 1965 年, 筆者는 文化財管理局 高相吉主事와 같이 4 月 17 日부터 全羅南道 天然記念物을 調査한바 있는데, 4 月 21 日 海南郡大屯山 大興寺附近에서 왕벚나무 自生種을 3 株 發見할 수 있었다. 그곳은 절의 南西쪽 約 2 km 떨어진 숲속인데 꽃이 滿開되었다. 1 株는 胸高周圍가 30 cm 정도로서 모두 베인뒤에 다시 자란 것이었다. 그중에는 베인 자국의 胸徑가 2 m 20 cm 에 달한것도 있다. 1 株는 岩石이 깎인곳에, 다른 1 株는 바위틈에 비스듬히 자라고 있었다.

今年에는 氣候關係인지 울벚나무, 왕벚나무, 산벚나무들이 모두 같은 時期에 꽃이 필 것이 注目된다.

濟州島産과 比較하여 基本形質에는 아무런 差異가 없으나 그러나 꽃이 크고 가지에 다닥 다닥 많이 붙으며 萼筒이 짧으며 蕊片에 不分明한 鋸齒가 있고 樹皮가 붉은색을 띠는점이 多少 다르다. 境內의 栽培種과 比較하면 花梗이 길고 꽃 全體가 작다는 점만이 다르다.

## 要 約

1. 漢拿山에는 現在까지에 왕벚나무의 自生種이 10 餘株 알려졌는데 그 中에는 胸高周圍가 2 m 5 cm 의 老木부터 10 cm 程度까지의 各階層이 現存하고, 베인 자국이 3 cm 18 cm 나 되는 것도 있다. 大屯山에는 胸高周圍가 91 cm 되는 것이 1 株, 남겨지는 베인뒤에 30 cm 정도로 자란것이 2 株 現存한다는 事實로 보아서 濟州道와 大屯山을 連結한 地域은 그 發生地로 推定할 수 있다.

2. 漢拿山産과 大屯山産의 왕벚나무를 比較하면 基本形質에는 差異가 없으나 樹齡과 生育地에 따라서 꽃의 크기와 花色, 잎, 꽃말뭉치, 花梗 및 冬芽의 鱗片에 있는 털의 多少에는 個體間에 變異가 있다.

3. 栽培種인 왕벚나무를 濟州道, 大興寺 그밖에 各地産을 比較하여도 樹齡과 生育地에 따라 個體間에 相當한 變異가 있다.

4. 漢拿山 및 大屯山의 自生種과 그 地域에서 栽培하는 것과 比較하면 꽃의 크기, 花梗의 長短에는 差異가 있으나 基本形質에는 差가 없다.

5. 兩地域에는 老樹에서 稚樹까지 있는 點에서 種子로 繁殖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以上을 綜合하면 왕벚나무는 漢拿山과 大屯山을 中心으로 發生하여 固定된 獨立種으로 斷定한다.